

새로나온 책...

▲마음의 비밀 2(성운스님 법어·이인옥 역)=불광산에서 대만 불교를 이끌고 있는 성운스님의 법어집을 우리말로 옮겼다. 스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신심과 기쁨, 편리함과 봉사를 펼칠 것'을 강조한다. (보림, 6천원)

▲오세동자의 오도(백운스님 지음)=불교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큰스님들의 이야기를 소설화했다. 세상을 가장 멋지게 살았던 고승들의 발자취를 생화형식으로 흥미있게 재구성했다. (보림, 6천원)

▲전등록 2(문재현 옮김)=송나라 진종경역 원년에 오나라의 사문도인(道彦)이 석가이래 조사의 법맥을 체계화하고 법어를 기록한(경덕전등록)을 번역했다. (바로보인, 1만8천원)

▲두손 모은 곳에 저버가(불교문화진흥회 엮음)=부처님의 가르침과 생애, 절에서의 예절, 기초 교리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한 불교 입문서. (관음, 6천원)

▲죽음의 길을 어떻게 잘 다녀올까(정이창 지음)=죽음은 내가 떠나는 영혼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것. 죽음은 삶의 막다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영가전도의 중요성을 에세이식으로 서술했다. (승리, 7천원)

청소년 불서포교 '거북 걸음'

작년 불과 15종 출간... 상업성 고려 외면 포교원 '추천제' 검토... 올 만화출판 활기 띠 듯

불교 경전 속에는 아동에게 좋은 정서와 인성을 심어줄 수 있는 수많은 재료가 있다. 선재동자의 구도행각이나 본생담, 신비하고 재미있는 불교설화 등 불교 내의 소재만도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실제 이런 내용을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맞게 불서로 출판된 도서는 크게 미비해 청소년 포교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책방 여시아문과 불서출판 운주사의 도서목록을 분석한 결과(1월6일 현재), 교계출판사에서 펴낸 어린이·청소년불서(이하 아동불서)는 260여종이며, 이중 순수 불서는 130여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출간된 아동불서는 15종 18권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한출판협회가 지난 9일 발표한 95년 출판통계상의 아동부문 신간발행 종수 4,163

종의 0.36%에 불과한 수치다. 내용별로 보면, 교리서는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좋은인연) <어린이불교>(동국역경사업진흥회) <청소년 불교수련의 길잡이>(정토) 등 4종이며, 동화책은 '부처님의 땅 3·4'(불지사) <코끼리의 눈물>(말알) <지혜로운 바람이 들려주는 불교이야기>(가리온) 등 5종이다. 또 전기는 <석가모니의 생애와 가르침>(말알) <어린이를 담은 큰스님 상·하>(우리출판사) 등 2종이며, 만화책은 <만화 부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 캠페인

처님의 전생이야기(사사연) <만화 화엄경 5·6>(불교만화사) 등 3종, 동요는 <피아노 찬불동요>(현대음악출판사) 1종 등이다. 1월6일 현재까지 나온 아동불서를 출판사별로 살펴 보면, 불미비불교동화 시리즈를 펴낸 고려원미디어가 14종으로 가장 많은 책을 펴냈다. 불광출판부가 10종, 햇빛출판사가 10종,

우리출판사가 9종, 불지사가 7종, 불교만화사·관음출판사가 6종, 창작과비평사·교과사가 5종씩을 각각 출판했다. '잘해야 본전'이란 아동불서 출판시장의 현황을 볼 때 올해도 그 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하지만 최악의 출판시장을 경험한 교계출판사들은 비디오 세대를 위한 불교만화 출판의 중심으로 포교용 아동불서의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출판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지혜·경하·성철스님

등의 전기를 소설화한 청소년불서 <고승의 발자취> 10권을 1차로 펴낼 예정이다. 또 불교만화사는 3월경 <만화 화엄경> 7~10권을 발행, 화엄경시리즈를 완간하고 대원정사는 중학교 고등교과 교재를 펴낼 예정이다. 고려원미디어는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5권을 곧 발행하며, 말알출판사도 <청소년과비평사 6종, 창작과비평사 6종, 교과사 5종씩을 각각 출판했다. '잘해야 본전'이란 아동불서 출판시장의 현황을 볼 때 올해도 그 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하지만 최악의 출판시장을 경험한 교계출판사들은 비디오 세대를 위한 불교만화 출판의 중심으로 포교용 아동불서의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출판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지혜·경하·성철스님

명사추천

불서 100선

승찬대사 '신심명'

신심명(信心銘)은 중국 선종의 3조인 승찬(信璨)대사가 지은 글이다. 내용은 불법의 근본사상인 중도(中道)를 4언절구(四言絶句) 146구 584자(字)로 읊은 짧은 운문(韻文)이다. 선(禪)에 관한 중국에서 성립된 문헌으로는 초조 달마(達磨)의 남긴 글이 몇편 전하나, 대부분은 위작(僞作)이라고 하며, 2조 혜가(慧可·487~533)의 글은 한편도 없으므로, 3조 승찬(?~606)의 '신심명'은 중국 선승이 찬술한 최초의 글이다. 달마가 전한 대승선(大乘禪)의 오묘한 선리(禪理)가 '신심명'에 의하여 명확하게 표현되었으니 실로 중국 선승사상 획기적인 글이다.

뜻을 감을 깊이 없어 조석예불을 모실때에 명복을 빌 뿐이다. 그러면 '신심명'의 내용은 어떠한가? 그 요지는 첫째머리는 '지도무난 유림간택' 1구에 다 실려있다고 할수 있다. 즉 본심 자리(至道)를 깨치는 일은 어려울 것이 없다. 오직 간학을 싫어한다. 즉 본래심은 이지불이(理智不二)의 분별없는 반야지(般若智)인데 자타의 차별상에 집착하여 득실 시비를 가리게 되고, 믿다 끝나는 증애(憎愛)하는 망심을 내어서 본심을 잃게 되니,



박관섭 (전국대 명예교수)

신심명은 가장 짧은 글이나 그 의의에 있어서는 부처님 일대의 설법을 위시하여, 8만4천법문, 5천7백여권의 경전만 조사(祖師)들에 의하여 검토된 1,700공안(公案)도 다 이 146구에 불과한 짧은 글 속에 담겨있어 실과되었으니, 실로 '신심명'은 불

중도 4언절구로 읊은 선종서

경전·공안 핵심내용 빠짐없이

법의 요약이요, 대승선·조사선의 원천이요 귀결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이르러 사찰이나 선원에서 예불 때에 독송하는 좌우명(座右銘)이 되고있다. 내가 이 같이 소중한 '신심명'을 평생토록 수지 복송하게 된 것은 30여년전 부터이다. 1960년 경에 조계종 종정으로 재차 추대된 하동산(河東山)큰스님께서 조계사에 주석하셨을 때이다. 번뇌를 씻기 위하여 찾아 읽고 참법하니, 스님께서서는 즉석에서 '신심명'의 첫구인 '지도무난 유림간택(至道無難 唯難兼擇)' 8자를 화두로 써주었다. 그후 여러 해 지난 후 우연한 기회에 신심명 전문(全文)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에 어찌나 기뻐했는지 146구 584자로 된 전문을 광리(廣利)와 외운 것이다. 그 후 오늘날까지 항상 낭송하면서, 불법의 오묘한 중도사상을 침구하고 있다. 동산큰스님의 이처럼 크신 법은(法

"포용·실천 두드러진 화엄사상에 매료"

한국출판문화사 저작상 김두진 교수

"독특한 포용성과 강한 실천성을 지닌 의상의 화엄사상에 매료되었지요." 제36회 한국출판문화사 저작상 수상자로 선정된 국민대 김두진(50·국사학과)교수는 "불교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종사상과 화엄·유식사상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됐다"고 말했다. 수상작 <의상 그의 생애와 화엄사상>(민음사)은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의 화엄사상과 신라중대의 정제정치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저서. 의상의 생애, 화엄사상의 논리구조와 역사적 의의 등 전체 8장으로 구

성태 있으며 신라 화엄사상 고대의 사회사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의 산물이다. <균여화엄사상연구>등의 저서와 수십편의 논문을 발표해 온 그는 현재 불교신앙과 토착신앙과의 융합현상 등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재



김두진 교수

95년 종교서적 중 불서 24% 차지

지난 95년 새로 나온 불서는 모두 443종으로 지난해 신간 종교서적(1834종)의 24.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책방 여시아문 불서신간목록과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의 '95년 출판통계'상의 수치를 비교한 것. 한편 '95년 출판통계'에 따

르면 발행종수는 2만7407종으로 94년(29,564종)에 비해 7.2%가 줄었으며, 부수도 1억 4418만3607부가 발행되어 94년보다 5.3% 감소했다. 이중 종교서적 발행은 94년 1941종에서 5.5% 감소했다.

'문화대국으로...' 펴내

문화부의 증권관료들이 우리나라 문화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 정책집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을 지식산업사에서 펴냈다.

보살사상 경구선집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보살행의 실천에 앞장서 온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유미경 법화경 화엄경 등 8편의 대승경전 중 보살사상이 담긴 경구들을 가려 뽑아 해설을 덧붙인 '보살사상 경구선집'을 펴냈다. '보살행이란 진리를 현실 속에서 구현시키는 불자의 임무이자 의무로서 중도적 연기관에 입각한 이타행이



보살사상 경구선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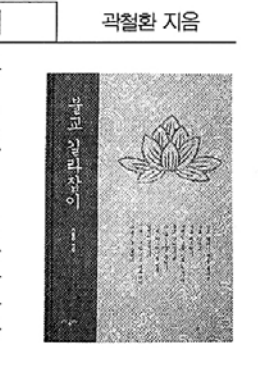
보살수행 가르침 한권에 결집

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라고 강조한 월주스님은 지난해 89년 경실련 공동대표를 필두로 불교인권위, 공추불, 시민단체협의회 등 여러 시민단체의 사회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살행을 고무하는 첫 시

도'란 스님의 설명처럼 이 책은 <백부 반야경> 중 공관사상에 기초한 6바리밀의 보살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또 <법화경>에서는 보살행이 일승행 즉, 성불행에 귀입됨을 표상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운주사, 1만5천원)

불교 길라잡이

불교에 처음 입문한 이들에게 불교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이해 주는 <불교 길라잡이>(관철한 지음)가 나왔다. 이 책은 불교에 대한 자의적인 해설을 피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경전과 어록, 고승들의 저술과 비문을 인용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초심자를 위해 많은 도표와 사진을 실었다.



불교 길라잡이

초심자위한 교리·의식등 해설

제1장 '인류의 발 석가모니'에서는 붓다의 생애를 중심으로 연기, 사성제 등의 기본교리를 서술했다. 제2장 '깨지지 않는 등불'에서는 초기교단과 경전의 성립, 대승불교의 출현, 대장경의 성립을 서술했다. 제3장 대승

의 세계, 제4장 선, 제5장 불교의 세계관, 제6장 간추린 한국불교사, 제7장 불교의 식, 제8장 사찰을 찾아서, 제9장 불교에 대한 99가지 문답과, 부록 '불전 다이제스트'로 구성돼 있다. (시공사, 1만8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립
2	도가 본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행했나	서 알	동 지
3	동부처	이 근 후	여시아문
4	금강경강의	무 비	불광
5	무소유	법 정	범우사
6	신통	혜 운	청 마
7	방한암 선사	김 호 산	민족사
8	등산불	석 용 상	문화수첩
9	불교의 이해와 실천	이 중 표	대원집사
10	평화로운	탁 낙 한	대원사

구입문의: (02)737-0695

大韓國人 安重根 義士

일본 헌병의 존경과 참회의 생애

日本에서는 佐木隆三(사키류조)가 쓴 '伊藤博文과 安重根', '曠野의烈士 安重根' 등 10여 종의 서적이 발간되었으며 安重根의 생애와 사상(東洋平和論)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무관심 속에.....

저명절연으로 인연을 맺은 일본 仙山(SENDA)소재 大林寺 주지 齊勝(사이토 다이켄) 스님의 권유로 八公山 藥師庵의 一如스님이 번역하여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 놀라운 정면들!!

이로움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대함을 보거든 목숨을 주라

나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내가 공소할 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되고 만다. 내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르렀을 즉 죽는 것이 영광이나 모자가 이 세상에서는 다시 상봉치 못하겠으니 그 심정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오리..... (義士 어머니가 심고를 프키하고 죽음을 택하라는 충고) -본문 중에서-

연락처 : (053) 825-0803, 藥師庵 一如

신비한 부처의 세계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역음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운은 이 책안에 있습니다

- ▲신년 대운을 짚는 비경부
- ▲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비경부
- ▲입학, 취직, 승진 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는 비경부
- ▲사업에 성공시키는 만사형통 비경부
- ▲승진취직을 취득하는 비경부
- ▲상제소멸 비경부
- ▲연애관계를美满한 인간이 되는 비경부
- ▲관리직 없는 집, 영, 집토를 잘 관리하게 하는 비경부
- ▲운행선수가 되는 재능을 얻는 비경부
- ▲화-재앙을 피하는 법과 풍속부
- ▲부자가 되는 비경부

운담 역음/신국문/328쪽/값 12,000원

책목의 소리 값 8,000원

여보게, 무엇을 그렇게 고뇌하는가 값 7,000원

허공에 서려 문혀진 세월

▶웅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도서!!

72년 0월 0일

죽음은 철조망에 비가 내린다. 죽음은 철조망에 광채가 앉았다 날아간다. -본문 중에서-

스님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한 완남으로서. 한 젊은이의 외로움과 공허가 여기 담겨져 있다. 지금 어느 누가 이 젊은이만큼의 넓은 눈과 넓은 마음을 가졌을까? 당신이 젊은이라면, 이 책은 당신이 모르는 또다른 당신을 깨워줄 것이다.

목판출판사 (02) 3673-0224

교보·영풍문고에 있습니다. 정가 5,000원

탈종공고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번지 152호

■사찰명 : 원효사

■주 지 : 안영호 (학봉)

상기 사찰 및 주지는 귀 중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하오며, 그 증거로 탈종서를 공고합니다.

1996. 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정정공고

본지 60호 신년축하광고 중 '부산불교일일회' 광고에서 부회장 최창을 최창로 바로 잡고 사무차장 이해운이 누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찾·습·니·다

전통불화 배우실 분

전통불교미술의 맥을 이어 기도·정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대 佛事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자 불광미술원이 새 가족을 찾습니다.

■성별 : 남

■연령 : 만 18세 ~ 25세 (군필 또는 면제자)

■학력 : 제한 없음

■기타 : 신심 돈독한 불자

■문의 : (02) 477-9178

불광교육관 부산공덕원 주지 석효선

포교 및 기도의 원력을 가지신 비구니 스님들을 모십니다.

•종무행정을 담당할 여법우를 모집합니다.

•문의 (051) 625-2253 625-2254